

과학기술부

제4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1월 26일(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를 계기로 하노이에 동남아 지역 원자력기술 수출 거점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되는 한·베 방사선의학 공동연구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한·베트남 양국간에 진행되었는데, 동 센터는 장차 우리기술로 개발한 사이클로트론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예정이다.

사이클로트론은 암진단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핵의학 장비인 PET에 동위원소를 공급하는 기기로서, 베트남 다낭시에서는 벌써부터 구입 문의가 들어오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고가의 의료장비이다. 한·베 원자력공동위는 한·베 원자력협력협정('96. 11)과 한국 과기부와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간 원자력협력을 위한 약정('02. 2)

에 따라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식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봉후탄(Vuong Huu Tan)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과 관련한 우리 경험을 소개하고, 원자력 인력 양성 분야, 원자력법령 및 안전규제 등의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방사선의학분야 수출저변확대를 위한 베트남의 전문인력양성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과기부는 이를 위하여 이틀 앞선 1월 24일 양국 과기부간 『한·베 방사선의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006년 1월에 수립한 '2020년까지 원자력개발 장기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원전 건설·운전 및 2010년까지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센터(2~3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 원자력진흥중합계획 수립

5년간 약 24,357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입 예상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30일(화) 집무실에서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4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비전과 정책목표 등을 담은 제3차 원자력진흥중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국제 원자력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 위촉직(김창효 서울

대 교수, 천병태 부산대 교수,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 정광화 표준(연) 원장, 배기광 에너지(연) 단장)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확보, 환경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목표와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한다.

한국형 표준원전(OPR1000+)과 APR1400을 중심

으로 원전 이용 확대와 소듐냉각고속로 등 핵비확산성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건설 지원 등 방사성폐기물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위상을 강화한다.

장기기동원전의 안전성 확인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안전규제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음과 관측망, 방사성핵종 분석 장비 확충 등 핵활동에 대한 효과적 탐지능력과 방재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원자력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제어봉 집합체, 계측제어설비 등 원전 핵심기기 국산화를 통해 원전 수출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고, 핵연료 재료 및 부품, 방사선 기기, 사이클로트론, 방사선 계측기 등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고유 브랜드의 원자력 수출 상품군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넷째,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CRC : Cyclotron Research Center)를 PET/CT용 방사성동위원소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원자력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과 연계를 강화하여 원자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차세대 에너지체험관 설치('07.3월)·운영, 원자력 이용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원자력의 국민 이해 증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원자력 위상강화를 위한 원자력 국

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국제협력 채널(IAEA, OECD/NEA 등)을 다양화하여 원자력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와의 협력 강화, 2014년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에너지가 세계적 화두임을 밝히며, 원자력이용확대와 함께 원자력안전, 핵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한 국민신뢰 증진과 국민적 합의속에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금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 70여명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초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직접 참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력학회, 사이버 공청회, PCRМ 등을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또한 제1·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6)의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국내외의 원자력동향과 환경변화를 분석·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원자력 핵심원천기술과 고유 강점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방사선 기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창출되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을 선도하는 원자력 선진 5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원자력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내용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 및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www.ri.or.kr) 홈페이지 유관기관 소식란에서 볼 수 있다.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원자력분야 기술개발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 1,909억원 투입

올해에는 미래 핵심·원천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의학기술 개발, 국내 고유 강점기술 개발 등의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의 과제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추진된다.

12일 과학기술부는 제12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909억원(전년 대비 1.5% 증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07년도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은 미래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및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원자력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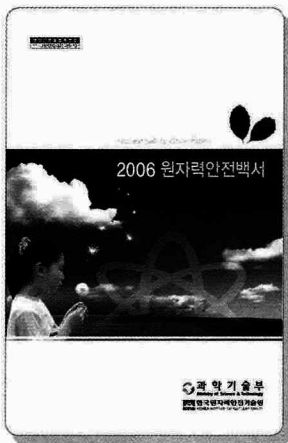
올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 5개

년 계획(2007~2011)과 연계하여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중점 지원하게 된다.

금년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미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 1,450억원, 연구시설 기반구축 및 인력기반을 확충하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225억원, 방사선융합·의학기술을 개발하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 205억원,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에 29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올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과 방사선기술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활동을 소개하는 「2006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활동을 소개하는 「2006년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하였다.

원자력안전백서에는 원자력시설 안전,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본문 총 7편과 주요 원자력통계 및 관련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06년도 판에는 계속운전 제도화, 원전 1,2차 계통 안전규제, 리스크 정보 활용 검사제도, 국가 원자력통제체제의 확립 등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관련 제도와 시책 등이 소개되어 있다.

과학기술부는 1992년부터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요 활동 및 정책방향,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규제활동 등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해 원자력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원자력안전백서」는 과학기술부(www.most.go.kr)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